

# 농축산물값 강세에... 벌써부터 설 명절 걱정

### 사과·배 냉해피해·재배면적 감소 생산량 줄어 가격 상승세 이어져 송아지값 올라 거세우 출하 적어 수요 앞두고 한우값도 크게 뛴듯

다가오는 내년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제수 상품으로 꼽히는 배와 사과 등 과일을 비롯해 소고기 가격도 설 명절 수요를 앞두고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차례상 주요 제수용 과일인 사과와 배, 단감 모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설 명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해 제수용품 마련 비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22% 적은 20만 8000t 수준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 감소한 데다,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폭염 등 전반적인 기상 악화로 단수도 18% 상당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한 배의 저장량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전년보다 24% 적은 9만 1000t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달 12월 배 출하량 역시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8% 적은 1만 7000t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 이후 출하량도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27%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배 상품(15kg) 도매가격이 2만 8123원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 적어도 오는 설 명절엔 최대 2배 가까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또한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1% 감소한 데다,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폭염으로 단수가 줄었다. 재배면적 비중을 가장 많은 품종인 후지의 경우 당초 예상에 비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반적인 생산이 좋지 못하면서 올해 사과 저장량(12월~내년 7월)도 전년보다 18% 적은 23만 3000t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

다. 이달 사과 출하량도 지난해보다 13% 적은 3만 7000t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과(후지) 도매가격도 상품 10kg 기준 지난 설 명절 2만 7258원보다 5000원 상당은 더 비싸게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감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1% 상당 줄었다. 재배면적이 5%나 감소했고 역시 이상기후로 단수가 감소해서다. 단감 저장량(12월~익년 4월)도 16%나 줄어든 3만 3000t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데다, 최근 저장기 가격이 좋지 못하면서 농가의 저장의향 역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출하가 앞당겨져 생산량 감소에 비해 저장량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 수요증가까지 겹치면 전년 상품(10kg) 기준 도매가격 3만 4524원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앞선 데 덧붙여, 설 명절 수요 증가로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던 한우는 설 명절 수요가 증가하면 또다시 '몸값'이 뛴 가능

성이 있어서다.

최근 한우의 도매가격 상승으로 수송까지 가격이 전년보다 5%, 암송아지는 6.9%나 오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부터 설 명절이 끼이는 내년 2월까지 한우의 도축 마릿수는 거세우 출하예정 마릿수가 적어 전년보다 0.1~3.2% 감소한 20만 5000~21만 1000마리로 전망된다. 특히, 설 수요 대비 도축되는 소의 수도 출하할 소가 적어지는 탓에 감소하면서 덩달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1등급 지속 1kg·1만 7779원)보다 상승한 1만 7800~1만 8800원 수준에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닭고기의 경우 이달 전년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내년 1~2월 도축되는 닭의 수가 증가하면서 산기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돼지고기도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 한동안 가격 약세가 예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 美·中 무역협상 불확실성 부각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여전 보수적 관점 박스권 흐름 겨냥 연말 배당투자 관련주 접근을

지난달 국내증시는 미·중 정상간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난 주 코스피지수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90일간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실무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으로 급등 출발했지만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 부각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위시한 강경론자의 실무협상 참여 소식,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와 딸이 자 최고재무책임자인 명완저우 부회장의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 요청에 의해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며 시장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어 하락했다.

지난주 금융시장에서 미국 '일드커브(Yield Curve·수익률 곡선)역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수익률곡선은 다른 제반조건들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만기까지의 기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채권수익률의 변동 상황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경기상황 파악이나 경기전망을 위한 자료로 중요하게 사용된다. 지난 3일 미국 국채금리 5년물과 2년물이 2.82%로 같아지면서 부각됐고 지난 7일 증가기준으로는 2년물 2.72% 대비 5년물 2.69%로 역전됐다. 장·단기 금리 비교의 기준이 되는 10년물은 2.85%로 2년물과 0.13%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내년 초에 역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드커브 역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 1986년 이후 세 차례 10년물과 2년물 금리역전이 있었는데 세 차례 모두 경기 침체로 연결됐고 일드커브 역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Fed의 금리인상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11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지난달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15만 5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달 23만 7000명과 시장 전망치 19만명을 모두 밑돌았다. 지난 7일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속에서 고용지표 부진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내년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하면서 다우지수 2.24%, 나스닥 지수 3.05% 하락했다.

물론, 지난주 일드커브 역전이 추세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곧바로 경기침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 12월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지난 2007년 12월에 경기침체에 진입했으므로 약 2년의 시차를 두었고 이것이 통상적이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무역갈등을 포함하여 일드커브 역전, Fed금리인상, 브렉스, 이탈리아 예산안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산재된 리스크가 여전해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선호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실적을 이끌어주던 반도체 이익 추정치가 감소하며 국내 상장사 기업이익 전망 부진이 이어지고 국내증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월과 같은 지수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수반등도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박스권 지수흐름을 겨냥해 연말 배당투자 관련주와 상장지수펀드(ETF)의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 민형배 초청 자치분권 시대 농협·농협인 역할 강연

###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대선)는 최근 민형배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 비서관을 초청해 자치분권 시대 농협과 농협인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지역본부 건물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에는 200여명의 전남농협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민 비서관은 강연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농협과 농협 구성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 지역농협의 높은 자율성, 선거로 지도부를 결정하는 방식 등이 자치분권에 기반한 국가운영 원리와 닮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으로, 지역사회가 자치와 분권,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원활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전남농협 임직원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내년 중요 현안 개선방안 논의 '희망 농업발전 간담회'

### 농협 광주지역본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역회관 컨벤션홀에서 '희망 2019 농업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 14개 지역농협 조합장과 NH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 광주검사국 CEO 및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농협사업의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내년도 농업과 농협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농협 광주본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농협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 중요한 시기다"며 "내년 광주농협은 전 임직원은 농촌과 농업인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도 농수산물 중화권 수출 4500만달러 협약 체결

수출상담 결과, 해남의 빨간배추 가공업체와 중국 지린성 식품회사 간 500만 달러 수출 MOU를 비롯해 총 41건(농식품 16건, 수산식품 13건, 공산품 12건) 4532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반건조우럭·건조매생이 등 전남 우수 수산식품은 다음 달부터 수출 주문을 하겠다

는 구두계약이 함께 이뤄져 최근 주춤했던 중국 수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국 내 한국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마스크팩·천연화장품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함초·아로니아·모링가 등 건강식품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사드 갈등으로 주춤했던 중국 수산물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현지 판매장 운영,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전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사업을 확대 추진해왔다. 올해 4회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를 열어 총 66건, 5805만 달러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브랜드대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구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 1588-2219